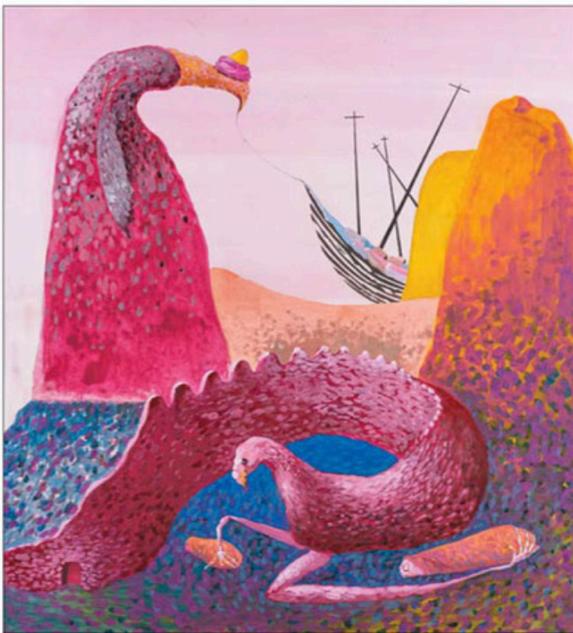


한국에 온 중동 미술...이국적 신선함에 빠지다

서울시립미술관 `고향`展
삶의 터전 잃은 아랍 작가들
상실과 분노, 희망 그려내

삼청동 바라캇 컨템퍼러리에선
이집트작가 와엘 샤키 개인전

전지현 기자 입력: 2020. 01. 07



중동 미술 전시 고향에 걸린 팔레스타인 화가 술리만 만수르 회화 깨어난 마을 (오른쪽), 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 개인전 작품 알 아라바알 마드푸나 (31일까지). [사진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바라캇 컨템퍼러리]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성지는 모두 팔레스타인에 있다. 이 복잡한 종교적 숙명 때문에 분쟁의 땅이 됐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성지이자 고향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화가 술리만 만수르(73)가 예루살렘을 등에 지고 다니는 늙은 짐꾼을 그린 1973년작 `역경의 낙타`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집을 짓고 곡식을 심어 팔레스타인의 번영을 이룬 사람들을 낳은 여신을 그린 회화 `깨어난 마을`이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 걸려 있다.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데 사활을 건 중동 지역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전시 `고향` (3월 8일까지) 주요 작품이다. 중동 지역 출신 작가와 국내 작가 16명이 참여해 상실과 분노, 희망을 예술로 풀어냈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레바논, 샤르자 등을 찾아다니면서 11개월 간 전시를 준비한 권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는 "대부분 작가들이 고향을 떠나 작업하고 있었다. 고향을 키워드로 중동 역사와 민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49)는 이 전시 외에도 서울 삼청동 청와대 앞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인전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31일까지)를 동시에 열고 있다. 방탄소년단 등이 중동 지역에서 K팝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한국 미술 중심지도 중동 미술에 활짝 열며 상호 문화 교류장을 만들었다. 이국적인 색채로 무장한 중동 미술은 서구 미술에 익숙한 국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와엘 샤키 회화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고향` 전에서는 팔레스타인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해온 조지 M. 알 아마 팔레스타인 은행 컬렉션 대표 소장품이 화제다. 만수르 회화 `깨어난 마을` 외에 아메르 쇼말리 설치 작품 `깨진 결혼식`, 압둘 헤이 모살람 자라라 부조 `압둘 헤이 어머니의 집`과 `신부의 옷장`, 이스마일 샤무트 유화 `6월의 겨울` 등이 그의 컬렉션이다.

`깨진 결혼식`은 결혼 예복이 되지 못한 알록달록한 실타래 1296개를 나무판에 붙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팔레스타인들의 비극을 비석처럼 만든 작품이다.

`압둘 헤이 어머니의 집`과 `신부의 옷장`은 각각 장례식과 결혼식을 새겨 사라져가는 팔레스타인 전통 문화를 기록했다. `6월의 겨울`은 난민 캠프 주변에서 꼭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을 그렸다. 18세에 고향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 그림이다.

아델 아비딘 `청소`는 먼지 묻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물대포로 씻기는 영상 작품이다. 전쟁과 인종 청소 등 잔혹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난민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며 "인종차별이 사라져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백인의 하얀 색깔이 세상의 주된 색조가 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샤키는 11세기 말에서 13세기까지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의 지배권을 놓고 셀주크 투르크(이슬람 왕조)와 비잔티움 제국(기독교) 사이에 벌어진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상과 나무 부조, 성벽 작업을 펼쳤다.

부조 작품 `십자군 카바레: 호러쇼 파일`은 프랑스 화가 클로드 자캉이 1846년 상상해서 그린 예루살렘 전투 장면을 재현했다. 하지만 샤키는 상상의 생명체를 넣어 허구를 사실처럼 기록한 서구의 미술사를 재치 있게 꾸짖는다.

그는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에도 다양한 상상의 생명체들을 그린 회화들을 걸었다. 주로 공룡이나 물고기, 토끼 등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유적 도시이며 과거 이집트 남부 수도였던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마을을 방문했던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영상과 회화 등을 제작했다. 지하에 묻힌 보물을 찾으려 땅을 파고, 연금술과 영적 행위를 통해 선대의 비밀을 찾아가는 마을 주민들을 목격한 작가는 당시의 신비로운 체험 위에 이집트 작가 모하메드 무스타갑 소설 `다이루트의 우화들`에 수록된 단편 `해바라기` 내용을 중첩시켜 몽환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작가는 "인생에서 목격하는 것들, 역사에서 읽는 것들에 내 무의식을 혼합해 작품에 반영했다. 서로 다른 두 개 세상을 합치는게 작품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유진상 미술평론가는 "전세계 비엔날레와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아랍세계 작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시간과 동시대 사건을 혼재시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와엘 쇼키와 중동 작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